

인터넷 중독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효능감

최 범 성¹⁾ · 김 봉 석^{1,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정신과학교실,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²⁾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of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Internet Addiction an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um-Sung Choi, M.D.¹⁾ and Bongseog Kim, M.D., Ph.D.^{1,2)}

¹⁾Department of Psychiatry,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levels of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suffering from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and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alone only, and those with normal children.

Methods :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25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and IAD, 35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alone, and 50 mothers of normal children. They completed the Parenting Stress Index (PSI)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Results : In comparison with the mothers of normal children,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and IAD and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alon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parenting stress and lower parenting efficacy. However, a comparis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and IAD with those of children with ADHD alon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levels of parenting stress or efficacy.

Conclusion :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IAD exhibited a higher level of parenting stress and a lower level of parenting efficacy than mothers of normal children.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 ADHD · Parenting Stress · Parenting Efficacy.

서 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이점도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이들의 행동과 사회성,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문제현상 중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 현상이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중독 장애, 사이버 중독, 컴퓨터 중독, 병적 인터넷 사용, 문제적 인터넷 사용, 강박적 인터넷 사용 등으로 불리는 현상으로 가상공간의 활동에 집착하고 의존하며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현실 세계의 사회,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¹⁾ 일반적으로 중독이라 함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같이 인간의 몸 안으로 흡수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문제를 칭하는데, 십여 년 전부터 '행위 중독'이라는 개념 안에 도박, 식이, 운동, 쇼핑, 비디오 게임 등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²⁻⁴⁾ 이런 관점에서 인터넷 중독은 행위 중독의 하나로 분류가 가능하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Goldberg⁵⁾에 의해 처음으로 제

접수완료 : 2010년 2월 1일 / 심사완료 : 2010년 5월 13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 Bongseog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761-1 Sanggye 7-dong, Nowon-gu, Seoul 139-707, Korea

Tel : +82.2-950-1087, Fax : +82.2-936-8069

E-mail : kimbs328@paik.ac.kr

본 논문은 2009년도 인제대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안되었는데, 그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DSM-IV)의 의존증의 진단기준을 이용해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진단기준을 만들었으며,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후 Young⁶⁾이 DSM-IV의 병적 도박의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중독 물질이 없는 충동 조절 장애로 간주하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Young⁶⁾은 인터넷 중독이 도박이나 쇼핑중독과 같은 행위적 중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행위적 중독에서 중독자들은 바로 그 행동을 할 때 경험하는 느낌에 중독되는 것처럼 인터넷 중독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물질중독과 마찬가지로 내성과 금단현상이 일어나 불안, 초조, 강박행동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업이나 대인관계 영역에서도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Iftene과 Roberts⁷⁾에 의하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은 친밀감이 결핍되어 있고, 좌절내성이 약하며, 충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이고, 학교에 결석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심리검사에서 슬픔과 우울, 고립감,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사회적 관계의 회피와 철수로 인한 사회성의 감퇴,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학업 기능의 저하, 재정적 문제, 실직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⁸⁻¹¹⁾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연구에는 인터넷의 병리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신 질환과의 관련성에 관해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다. Rauschenberger¹²⁾는 인터넷 중독자에게서 정상인들보다 많은 정신병리가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Mitchell¹³⁾은 인터넷 중독이 종종 다른 정신병리로 이환된다고 하였으며, 정신분열형 인격장애가 일반인보다 사이버 공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역으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사회적 철수나 우울증 같은 새로운 정신병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Orzack¹⁴⁾은 인터넷 중독이 우울증, 사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와 같은 기존의 병리를 좀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의 과다사용이 ADHD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다. Orzack¹⁵⁾은 인터넷 중독과 ADHD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으며,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각성도를 높이기 위해 과잉 행동 대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¹⁶⁾ 국내 연구에서 게임을 더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¹⁷⁾ ADHD 아동 및 청소년이 게임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¹⁸⁾

인터넷 중독의 이러한 증상은 아동 및 청소년 자신의 사회적, 학업적 기능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사회적인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19,20)}

어머니들이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녀의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둘째,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셋째,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인 질병, 정서적인 문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 부족, 그리고 이혼, 배우자의 사망, 이사 등과 같은 특별한 생활 사건의 발생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²¹⁾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의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효능감이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의 기대를 의미한다.²²⁾ 즉,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 행동을 시도하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²³⁾ Teti와 Gelfand²⁴⁾는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지라도 자녀와 민감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능력에 대해 회의감이 생긴 어머니는 자녀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인터넷 중독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는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양육 역할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무력감,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부부 갈등, 분노나 좌절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²⁵⁾

Patterson 연구에서 ADHD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키우기가 어렵고 부모에게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와 좌절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²⁵⁾ 인터넷 중독 성향이 공존하는 아동 및 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는 적다. 특히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는 ADHD와 인터넷 중독이 공존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가 ADHD만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효능감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제로 그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그 결과를 ADHD

와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차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 법

1. 대 상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대학병원 소아 청소년 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6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 중, ADHD로 진단된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60명과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ADHD로 진단된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척도(Internet Addiction Scale, IAS)를 시행하여 다시 인터넷 중독집단과 일반 이용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25명,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은 서울 소재 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 중에서 정신과적인 문제로 정신과적 자문,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로 담임교사들로부터 특별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고 평가된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에게 미치는 자녀의 지적인 능력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능지수 80 미만인 아동들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방 법

ADHD,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연구통계학적 설문지와 양육 스트레스 척도, 부모 효능감 척도, 인터넷 중독 척도를 실시하였다. ADHD의 임상적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의 임상적 진단과 임상 심리 전문가의 심리학적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이 연구는 병원 임상시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3. 도 구

1) 인터넷 중독 척도(Internet Addiction Scale, IAS)

Young이 개발한 Internet Addiction Scale⁸⁾을 김은정 등이 번역 수정하여 제작한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²⁶⁾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5점(1~5)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더 높을수록 더 중독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와 변화 여부, 인터넷 상황에서의 강박적인 행동과 의존적인 특성, 대인관계

성향의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는 점수의 합계가 20~49점인 사람은 평범한 이용자로 자기 통제가 가능한 '일반 이용집단'이며, 50~79점은 인터넷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초기 중독집단'으로 보았고, 80~100점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증 중독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0점 이상을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파악하여 중독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2) 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

Abidin이 제작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신숙제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²³⁾ PSI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된 부모용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부모영역과 자녀영역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1개의 문항 가운데 부모 영역은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숙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적절하지 못한 문항과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하위 요인별로 '일상적 스트레스' 10문항,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문항, 그리고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30~150점이다.

3) 양육 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n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신숙제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²³⁾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양육 효능감' 5문항, 자녀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된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5문항,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 문항 7문항, 자녀의 지적학습과 관련된 '학습지도 능력' 4문항, 그리고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과 관련된 '훈육능력' 9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30~150점이다.

4. 자료 분석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각 세 집단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 집단에 대해 양육 스트레스, 부모 효능감의 각 하위 요인별로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의의는 $p < .05$ 로 하였다. 모든 자료는 SA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연구에 참여한 총 110명 중,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25명,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35명,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세 집단 간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 나이, 어머니의 평균 나이 및 교육 연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1.76세,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0.97세,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나이는 12.32세였다.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40.84세,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40.40세, 일반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의 나이는 42.50세였다.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의 평균 교육연수는 13.12년,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의 평균 교육연수는 14.34년, 일반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의

교육연수는 14.64년이었다(Table 1).

2. 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의 총점 및 각 하위척도의 비교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들이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에서도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서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하지만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세 영역에서 모두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p < .001$). 하지만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 간에는 세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일상적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 Group 1 (N=25) | Group 2 (N=35) | Group 3 (N=50) |
|----------------------------|----------------|----------------|----------------|
| Child age | 11.76 ± 3.32 | 10.97 ± 2.92 | 12.32 ± 2.82 |
| Maternal age | 40.84 ± 5.04 | 40.40 ± 5.45 | 42.50 ± 4.40 |
| Maternal educational years | 13.12 ± 1.83 | 14.34 ± 2.03 | 14.64 ± 2.26 |

IAD :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Group 1=Patients with IAD+ADHD, Group 2=Patients with ADHD, Group 3=normal control

Table 2. Comparison of PSI and PSI subscales among IAD+ADHD, ADHD and normal control group

| | Group 1 (N=25) | Group 2 (N=35) | Group 3 (N=50) | F-value | Post Hoc |
|---------------------------|----------------|----------------|----------------|---------|--------------|
| PSI- total | 89.80 ± 16.13 | 82.17 ± 13.16 | 66.88 ± 14.28 | 24.542* | 1>3* 2>3* |
| General stress | 27.32 ± 5.75 | 26.66 ± 5.69 | 25.32 ± 4.80 | 1.369 | |
| Child temper stress | 26.44 ± 5.11 | 25.00 ± 4.05 | 20.80 ± 4.63 | 15.785* | 1>3* 2>3* |
| Child relationship stress | 22.60 ± 5.33 | 22.74 ± 5.84 | 15.56 ± 5.72 | 21.471* | 1>3* 2>3* |
| Learning stress | 8.96 ± 4.30 | 7.77 ± 2.44 | 5.20 ± 1.92 | 17.966* | 1>3* 2>3* |

* : $p < .001$. IAD :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SI : Parenting Stress Index, Group 1=Patients with IAD+ADHD, Group 2=Patients with ADHD, Group 3=normal control

3. 양육 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의 종점 및 각 하위척도의 비교

양육 효능감에 있어서는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들이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들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양육 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능력' 항목에서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이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의사소통 능력' 항목에서는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이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습지도 능력' 항목에서는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이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 간에는 위 네 가지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전반적인 양육 효능감' 영역에서는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고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회피와 철수로 인한 사회성의 감퇴,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학업 기능의 저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고,⁸⁻¹¹⁾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모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²⁷⁾ 인터넷 중독 환자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부모의 태도가 환자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및 부모역할과 관련된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앞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총괄적으로 고찰하면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와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모두 일반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들이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에 비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Johnston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28,29)} '일상적 스트레스'를 제외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세 영역에서 모두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인 부주의성과 과잉 행동, 사회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반영한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Table 3. Comparison of PSOC and PSOC subscales among IAD+ADHD, ADHD and normal control group

| | Group 1 (N=25) | Group 2 (N=35) | Group 3 (N=50) | F- value | Post Hoc |
|----------------------|----------------|----------------|----------------|--------------------|--------------|
| PSOC- total | 102.76 ± 13.66 | 104.06 ± 11.20 | 113.10 ± 17.95 | 5.515 [†] | 3>1* 3>2* |
| General competence | 16.36 ± 1.89 | 16.51 ± 2.58 | 17.34 ± 3.42 | 1.323 | |
| Competential ability | 17.84 ± 3.55 | 18.09 ± 2.62 | 20.16 ± 4.18 | 4.997 [†] | 3>1* 3>2* |
| Communication | 25.64 ± 4.37 | 24.80 ± 4.24 | 27.40 ± 4.92 | 3.519* | 3>2* |
| Teaching ability | 13.60 ± 2.74 | 14.83 ± 2.96 | 15.64 ± 2.66 | 4.527 [†] | 3>1* |
| Rearing ability | 29.32 ± 4.11 | 29.66 ± 3.39 | 32.56 ± 5.36 | 6.178* | 3>1* 3>2* |

* : p<.05, † : p<.01. IAD :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SOC :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Group 1=Patients with IAD+ADHD, Group 2=Patients with ADHD, Group 3=normal control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육 스트레스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이는 인터넷 중독이 아직은 일정한 형태를 정의하기 힘들고, 학문적으로 명백하게 독자적인 증상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이 ADHD와 같은 일차적인 정신 병리적 상태에 의해 가려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진단 기준으로 사용한 Young의 인터넷 중독 척도가 가장 널리 쓰이고는 있으나, 정확한 심리 측정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제한점 등의 진단 정확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로서의 양육 효능감인데,²²⁾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와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모두 일반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에 비해 양육 효능감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가족들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더 감소한다고 한 Fischer, Johnston과 Mash의 의견과 일치하였다.^{22,30)} 한편, 양육 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능력’ 항목에서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이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 항목에서는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이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 능력’ 항목에서는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이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 간에는 위 네 가지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양육 효능감도 양육 스트레스와 비슷한 이유로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이 ADHD와 같은 일차적인 정신 병리적 상태에 의해 가려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 ‘전반적인 양육 효능감’ 영역에서는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ADHD 증상이 인터넷 중독에 비해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더 주요한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며 양육 효능감에 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ADHD와 인터넷 중독이 같이 공존하더라도 ADHD

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대처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에 포함된 각 집단의 사례 수, 지역 등이 한정되어 있고, 연구 대상이 6세에서 16세 사이로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효능감에 대한 평가가 모두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여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면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의 어머니의 성격적인 특성, 즉 아동 양육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정서적 문제 등에 대한 고려와 통제를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나 다른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대상 아동 및 청소년에 따른 어머니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 일반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의 양육 스트레스와 효능감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와 효능감에서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에서 모두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효능감은 더 낮았다. 한편,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과 인터넷 중독성이 없는 ADHD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 집단 사이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 ADHD와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효능감 양상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고, 차후 ADHD와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치료적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 인터넷 중독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양육 스트레스 · 양육 효능감.

References

- 1) **Oreilly M.** Internet Addiction: A new disorder enters the medical lexicon. *Can Med Assoc J* 1996;154:1882-1883.
- 2) **Griffiths M.** The cognitive psychology of gambling. *J Gamb Stud* 1990;6:31-42.
- 3) **Keeper GA.** Preoccupation with video game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0;29:49-50.
- 4) **Holden C.** Behavioral addiction: do they exist? *Science* 2001; 294:980-982.
- 5) **Goldberg I.**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1996. Available from URI: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supportgp.html>.
- 6) **Young KS.**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1998; John Wiley & Sons, Inc.
- 7) **Iftene F, Roberts N.** Internet use in adolescents: hobby or avoidance. *Can J Psychiatry* 2004;49:789-790.
- 8) **Young KS.**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Vande-Creek L, Jackson T, editor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Sarasota: Professional Resource Press;1999. p.19-31.
- 9) **Greenfield DN, Davis RA.** Lost in cyberspace. *Cyberpsychol Behav* 2002;5:347-353.
- 10) **Beard KW, Wolf EM.** Modification in the proposed diagnostic criteria for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 Behav* 2001;4:573-585.
- 11) **Morahan-Martin J.**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Proceedings of the 105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August 18; Chicago, US.
- 12) **Rauschenberger SH.** Fantasy prones and psychopathology. *J Abnorm Psychol* 1995;104:373-380.
- 13) **Mitchell P.** Internet addiction: genuine diagnosis or not? *Lancet* 2000;355:632.
- 14) **Orzack MH.** Internet addiction treatment.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1996 Aug 5. Available from URL: <http://www.cmhc.com/mlists.research>.
- 15) **Orzack MH.** How to recognize and treat computer.com addictions. *Directions Ment Health Counsel* 1999;9:13-20.
- 16) **Lee MS, Oh EY, Cho SM, Hong MJ, Moon JS.** An assessment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problems related to depression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 *Kor J Neuropsychiatr Assoc* 2001;40:616-626.
- 17) **Lee SY, Kwon JH.** Impulsivity,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tyle of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s. *J Korean Clinic Psychol* 2001;20:67-80.
- 18) **Kim HS.** Cyber game addiction. 2000. Available from URL: <http://netmentalhealth.fromdoctor.com>.
- 19) **Park SJ.** The effect of daily stress, self control, social relationship and parents' attitude on the addictive use of internet. Seoul: Hanyang Univ.;2002.
- 20) **Kim KS.** Relationship among internet addiction, parents' communication and parents' rearing attitude of adolescents. Busan: Pukyong Univ.;2006.
- 21) **The Association of Family Stress.** The stress of mother. Seoul: Changjisa;1994.
- 22) **Johnston C, Mash EJ.**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 Consult Clin Psychol* 1989;18:167-175.
- 23) **Shin SJ.** Parenting stress of mothers,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Seoul: Yonsei Univ.; 1997.
- 24) **Teti DM, Gelfand DM.**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 1991;62:918-929.
- 25) **Patterson GR.** Mothers: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 Soc Res Child Dev* 1980;45:212-232.
- 26) **Kim EJ, Lee SY, Oh SG.** The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Scale. *Kor J Clin Psychol* 2003;2:125-139.
- 27) **Lee YK.** Social relationships and adjustments of the computer game-addicted adolescents. Seoul: Sungshin Univ.;2002.
- 28) **Choi JY.** Parenting stress in mother of children with ADHD. Seoul: Soong-sil Univ.;2001.
- 29) **Johnston C, Mash EJ.** Parenting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 old hyperactivity and normal children. *J Consult Clin Psychol* 1983;51:86-99.
- 30) **Fischer M.** Parenting stress and the child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 Clin Child Adolesc Psychol* 1990;19: 337-346.